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 미 선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울산 · 경남지회 청소년상담실

제발 명쾌한 답변좀...

Q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자주 갖는 편입니다..
남자가 처음 성관계를 할 때는 금방 사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할 때는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런데 다음 번에도 마찬가지더라구요.
피스톤 운동을 몇 번 하지도 않는데 사정을 참지 못하겠더라구요.. 저흰 할 때 급하게 하는 편이긴한데.....애무를 별루 많이 하진 않거든요. 혹시 그런것 때문에 제 성기에 자극이 심하게 가서 그런건가요? 또 제가 중3때부터 자위를 했는데 횟수가 좀 많았습니다...지금도 자주하는 편이구요.. 혹시 그것 때문에 사정을 금방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 이런거죠? 남자구실 제대로 할 수 있는것인지... 꼭 좀 답변드립니다.
혹시 치료법이라도 있으면 같이 답변좀....

건강한 성관계는?

A 풀어놓기에는 쉽지 않는 자신의 성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오신 ♡♥님, 반갑습니다. 자신을 가꾸고 상대를 아끼는 ♡♥님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남자구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정을 빨리 끝난다는 점에서 볼 때 성교시간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것이 남자다운 구실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군요. 요즘에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성지식 때문에 자신이 비정상적인 경우는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들이 성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과 완벽하게 상대를 만족시켜야한다는 심적 부담이 먼저 앞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정의 시간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운 남성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며,

성관계에 대한 서로간의 일치된 결정입니다.

들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서로가 만족하는 시간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 함께 한 부부들도 이 점에선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이랍니다. 성교의 시간에 대한 어려움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성적 만족의 결정은 사정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닌 서로를 배려한 마음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잦은 자위행위만으로 성욕이나 성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번 기회에 올바른 성관계가 뭔지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육체적인 성숙만으로 성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더불어 자신이 정신적 ·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독립된 인격체로 성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성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성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준비된 성관계는 어떤 걸까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며, 성관계에 대한 서로간의 일치된 결정입니다. 그리고 피임방법의 이해와 생명에 대한 준비, 더불어 부모님, 주변친구 ,자기 자신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겠지요.

이제 상대와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의 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함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물론 피임에 대해서도 꼭 나누셔야 하겠죠.

성관계는 책임을 동반하고 그 책임은 서로가 지는 것이니까요.

부탁하신 치료법은 이미 ♡♥님의 상대분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속에서 찾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쾌락만으로 치우친 성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이 함께 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성의 주체로서 당당한 ♡♥님의 모습 기대할께요.